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 맞벌이〉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검토…고용 확대 기업 세금 감면

2017 경제정책방향 확정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재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을 제고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담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기금의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을 1%포인트(p)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약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당장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뽕족한 수 안보여”...“재정 조기 집행 환영”

전문가·재계 반응

전문가들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뽕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당장 경제정책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위기인식 부족으로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재정 조기 집행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 전망 2.6%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는 정책 목표로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일제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특히 내년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늘어난다는 경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급변 정부의 대책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신용시장 등 유망 분야에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태선·전남본부장 이흥묵

농협중앙회는 29일 광주지역본부장에 박태선 해남지부장을, 전남지역본부장에 이흥묵 광주지역본부장을 내년 1월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태선(54) 광주지역본부장은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농협에 입사, 그동안 해남군지부장과 서울영업본부 남영동 지점장, 중앙본부 상호금융기획부 팀장,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팀 팀장을 지냈다. 신임 이흥묵(55) 전남지역본

부장은 강진 출신으로 목포마리아회고와 농협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2년 농협에 입사해 광주지역본부장, 고양유통센터 사장, 목포유통센터 사장, 목포남약센터 지점장, 광주여신관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광주지역본부장이 29일, 전남본부장이 30일 각각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태선 본부장



이흥묵 본부장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6.46 (+1.97)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1)
↑ 코스닥 631.44 (+4.17)	↓ 환율 (USD) 1207.70원 (-2.80)

광주·전남 산업활동 ‘활기’

11월 광공업생산 광주 전년보다 8.9%·전남 5.9% 증가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생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산업활동이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8%, 전월 대비 8.9% 각각 증가했다.

자동차,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15.4%), 음료(21.9%) 등의 생산이 대폭 증가했다.

광주 지역 생산자제품 출하는 자동차,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감소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1차금속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고도 섬유제품,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17.2로 전월(124.7) 대비 감소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9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11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증기업(-18.4%), 1차금속(-1.6%), 석유정제(-0.7%) 등은 감소했으나 기타운송장비(39.0%), 화학제품(2.3%), 기계장비(87.2%)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0.2%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도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재고는 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이 감소해 같은 기간 9.4% 감소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5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스마트 TV 맞춤형 콘텐츠 신규 서비스 28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스마트 TV 맞춤형 콘텐츠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현대차, 이웃돕기 성금 250억원

현대차그룹이 29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2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이 2003년부터 1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누적 성금은 2090억원에 이르렀다. 그간 전달된 성금은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소외계층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등에 활용됐다.

이번에 기탁하는 250억원은 재난재해 예방과 교통안전 등 사회안전 증진, 각 계열사 핵심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